

적용업무의 운영에 대한 제언

조 봉 구

(두산정보통신(주) 이사)

오늘날의 경영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리엔지니어링과 리스트럭처어링이 되어왔다. 이 성과에 대해 혹자는 비판도 가하고 혹자는 성과를 논하기도 하였지만 기업이 발전하려면 상응한 조치로서 조직이나 관장업무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므로 업무의 통폐합이나 다운사이징이 추진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보시스템의 상황은 어떤가? 90년대에 들어 와서 분산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서버나 그룹웨어등이 사용자들의 구미를 크게 자극하고 있고 마치 클라이언트 서버로 구현하지 않거나 그룹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대에 크게 뒤떨어지는 듯한 압박감마저 느끼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를 주도하는 것이 전자결재등 문자 위주의 자료처리이며 기존의 적용업무에는 아직도 크게 못미치고 있다. 즉 사용자는 적용업무의 운영을 정보시스템 담

당조직에 맡기고 자신의 자료는 그룹웨어등을 이용하여 별도로 처리하는 정보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정보시스템이 발전하려면 정보시스템조직이 담당하던 적용업무의 운영을 사용자가 맡아야 그룹웨어와 함께 고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엔드유저 컴퓨팅이란 용어가 오래 전부터 쓰여 왔지만 실질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적용업무의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귀속문제였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정보시스템조직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정보시스템조직이 급변하는 정보기술과 경영환경을 접목시켜 나가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보가 기업내의 조직과 조직사이, 또는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의 유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반기술을 익히며 반면에 정보시스템 조직은 기존의 소극적인 유지보수에서 탈피하여 전사적인 정보시스템의 기반구축과 환경개선에 이바지 해야 할 것이며 경영자는 정보시스템조직을 진정한 의미의 정보체계 조정자로서 활용해야만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서 정보후진기업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